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말하는 법



김대혁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여기저기 떠돌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인격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명예훼손으로 형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므로 명예훼손법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연성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 대해 명예훼손적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하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내가 오직 친구에게만 말할 사실이 친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는 경우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내가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이다. 예를 들면 "A가 B를 때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이다, "A는 착한 사람이다 또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자는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별이 매우 모호한 경우가 있다. 특히 의견표명을 가장해 사실의 적시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실 적시에 대한 판단은 표현된 문장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해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전후의 문맥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가장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한편 진실한 사실의 적시와 허위사실의 적시를 구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허위사실의 적시가 불법성이 더 크고 처벌도 무겁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히지 않고, 소송진행 중에 어느 일방의 주장이 마치고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다면 허위의 사실 적시라고 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만약 어떠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누군가가 횡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횡령 혐의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그 피해자에게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특정의 방식은 사실 적시 판단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어떠한 게시글과 댓글 창에 주제로 삼고 있는 특정 인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누구인지 지칭하지 않고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항변으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오로지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침묵은 금이라는 속담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인종주의



기지수첩
서예진 (정치부)

최근 5·18민주화운동과 호남 지역을 조롱하는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임 등을 통해 10대들의 놀이 문화처럼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현장의 교사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한 지는 오래됐다. 배재고 야구팀 응원이라 무려 맥락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의미다.

이제 사회는 이런 게 '용인되지 않는 행위'이며, '질못된 행위'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니, 다음 단계가 이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 사태에 대해 보수 정치인들은 '징계가 과하다', '학생들의 미래를 망치려 든다', '표현의 자유다' 등의 발언을 했다.

보는 이들의 혈압을 가장 오르게 하는 건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가 너무나 닳고 싶어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가져왔다. 영국 포츠머스FC는 잉글랜드 대표팀 흑인 선수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남긴 유소년 선수 3명을 방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교 농구 우승팀이 라틴계 학생이 많은 상대팀에게 조롱의 의미로 '토르티야(멕시코 음식)'를 던지자, 지역 고교스포츠연맹은 우승자격을 박탈해 버렸다.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한다는 선진국에선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린다. 농담이어서도 혐오표현은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호남혐오를 '숨쉬듯이' 해왔다. 심지어 이들 전 공학에선 아주 큰 소리로 '전라도가 어저고'하는 이들을 봤다. 호남혐오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

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이걸 '지역주의'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지역주의'라는 말은 호남혐오를 교묘하게 감추는 포장지다. 출신 지역을 근거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도덕성, 판단 능력까지 재단하는 행위이며 피부색 대신 출신지를 기준으로 삼은 한국식 인종주의가 호남혐오다.

배재고 학생들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본인들에게 체화된 인종주의를 가르치는 게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되는 일인지. 왜 당신들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미래만 걱정하고, 경기를 방해받은 광주일고 학생들의 미래는 말하지 않는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이 사회의 구성원을 당신들은 왜 평범하게 대하지 못하는지. 혹시 '어차피 우리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지역'이니까, 이젠 드러내놓고 차별하겠다는 의지인지.

/sy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6일 (음 5월 2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http://www.fortunetory.com)



48년생 만남이 있으나 언쟁을 주의 해야 합니다. 60년생 배신 당할 수 있습니다. 72년생 일은 열심히 하나 뜻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84년생 추진함은 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4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상기하세요. 61년생 주변사람들과의 감정싸움을 주의하세요. 73년생 인간관계가 순조롭고 재물운이 있습니다. 85년생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50년생 큰 거래는 하지 마세요. 62년생 금전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4년생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6년생 업무적으로 바쁜 하루가 됩니다.



51년생 손실이 있으나 정신을 차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63년생 큰 결정은 잠시 미루세요. 75년생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7년생 여행을 계획했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52년생 귀인에게 자문을 구하면 성공합니다. 64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76년생 동남방이 길한 방향입니다. 88년생 고집을 버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고쳐보세요.



53년생 생활을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사세요. 65년생 차분한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77년생 힘 자랑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89년생 집 안에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54년생 금전, 명예운이 아주 길합니다. 66년생 가족 나들이에 가장이 화려합니다. 78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사업을 도모합니다. 90년생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5년생 선물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67년생 희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91년생 지나친 음주를 삼가세요.



56년생 사람과의 교제에 구실이 있으면 안됩니다. 68년생 명성과 이익이 있겠습니다. 80년생 일이 쉽게 이루어지니 큰 이익이 있겠습니다. 92년생 능력있는 뒷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57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69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81년생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93년생 분주하고 소독이 없습니다.



58년생 명예도 높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70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고기가 터집니다. 82년생 돼지띠나 용띠의 도움은 이득을 달고 옵니다. 94년생 안정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59년생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은 금물. 71년생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83년생 어렸을 때 친구와 만나게 됩니다. 95년생 남을 돕는 것이 곧 귀하게 돕는 것입니다.



김상회의 四季 재수대통

많은 사람이 복을 바라고 있지만, 특히나 '재수대통' (財數大通)이라는 말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토정비결과 같은 한 해의 운수나 신수를 점쳐볼 때 일단 재수대 통이라는 과거가 나오면 마음이 밝아지면서 기대에 부풀게 된다. 재수대 통의 범위는 각자의 입장마다 다른 것이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번창을, 결혼을 앞둔 남녀라면 확실한 인연의 등장을, 보통 사람들조차도 로또 대박과 같은 일확천금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막연하게라도 한두 번 횡재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랴 마는 이 모두가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각박해지다 보니 그런 횡재나 행운에 대한 기대를 마냥 탓할 수만은 없겠다. 시주팔자에 식신이 왕하며 편재 격이면서 신강격의 사람들은 대부분 재운이 좋다고 본다.

다만 겁제가 없으며 재운이 공방을 맞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겁재운이 들어오면 일귀 놓은 재물이 어느 순간 빠져나갈 일이 생기기도 한다. 예상치도 못한 재물운, 즉 횡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편재 운과 편인 운이 함께 있는 경우인데, 이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재물이 발동함을 의미하므로 복권당첨과 같은 황재수를 경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민간신앙적으로는 재수대 통을 불러온다는 이런저런 부적들을 소개하는 무속인들도 많이 보이고 재물과 연관이 깊은 돼지 모양의 저금통이나 금불이, 부엉이 조각상을 모으는 사람들도 적당하게 보인다.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좀 산다는 집에서는 가정의 안녕과 재복(財福), 자손의 창성(昌盛), 가족의 수복(壽福) 등 집안에 재수가 형통하기를 빌기 위해 봄과 가을로 재수굿을 하기도 했으며, 각자의 집에서 이런 일을 치르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 일반 사찰에서는 역시 봄과 가을에 산신제를 지내기도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 365

스도쿠 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4	9				5	
	5	9	8						
	4			6	2			8	7
			1				2		8
7									4
2		3					4		
4	8		2	1					9
					6	8	2		
2			3	8				6	

	4		6	1	3	9	7			
	7		9							
5	8					9	7			
9		2								
7	3							2	9	
							5		7	
			7	8					9	6
						8			3	
	2	3	1	9	7				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4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5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